

이러한 인사의 내용은 "참신하고 유능한 개혁자"인사를 기용하려 노력했다"는 칭

## 전임 대통령의 정신대 '망언' 93.2.27

한겨레신문

다음달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종군 위안부에 대한 제2차 조사결과를 앞두고 외신이 전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언론의 보도내용은 해괴하기 짝이 없다. 그 몇 대목만 추려봐도 이런 식이다. "강제연행 가능성도 언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진상규명의 핵심인 강제연행을 어떤 식으로 짚고 넘어갈 것인가가 최대의 초점이다."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굳혔다."...

우리의 상식으로, 진실이란 시인 여부를 '검토'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몹시 거북한지 모르지만, 정신대의 진실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 강제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정신대 할머니들이 아직도 솔하게 살아 있고, 그들의 증언을 담은 기록 또한 한국 일본 두 나라에 적지 않다. 한국측이 제시하고 있는 1백55명의 증언집도 있다. 그 증언을 들어보거나 그 기록을 들춰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어디 있느냐니, 강제연행을 시인할지 말지 검토를 하느니 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마치 꼬리는 내 놓고 대가리만 덩불에 처박은 썰의 어리석음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그와 같은 교활하고도 어리석은 자세가 그동안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어온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거듭 지적해왔다. 그러나 엇그제 민주당 손세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밝힌 전임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잡지와와의 대담 내용은,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일부 지도층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주

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일본의 유력 월간지의 하나인 <문예춘추>(3월 치)와의 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일본 폭력조직의 덕목이라고나 할 '인정과 의리'를 좌우명으로 살아왔다는니,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서 원충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어려운 점의 하나'라느니, 혹은 베트남 전선에서 메이지유신 때의 인물들 주인공으로 한 시바 료타로의 역사소설을 반세워 읽었다느니 하는 대목들은, 불행한 역사를 가진 이웃나라의 대통령으로 할말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지만, 대통령 개인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는 보낼 말이 없다. 그러나 일본이 큰 나라로서 여유를 보여주면 한국국민은 감격을 잘해 대단히 고마워할 것이라면서, 두 나라간의 최대 현안인 정신대문제도 일본이 마음으로부터 미안했다고 말해준다면 역사 속에 묻힐 것을, 두 나라 언론이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한 굴욕적인 발언 따위는 이 문제가 어찌해서 아직도 오늘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전임 대통령이 보여준 이런 치욕적 대일자세를 단호하게 청산하고, 특히 정신대문제에 관한 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밝혀줄 것을 당부한다. 동남아 유럽 유엔 등으로 먼저 이미 세계문제화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부끄러운 꼴을 보여 남들로부터 경멸받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전에 일본 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촉구한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종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장이나 돈굴리기 등이 문제지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재벌도 필요하다.

-쌀시장 개방문제는.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대외지향적이기 때문에 개방정책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대외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인가.

원에 다시 돌아와 기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한은 조사부처 61년 경제기획원 창설 때 기획관에 들어왔다. 경제기획국장을 지낸 그는 72년 대통령비서실로 옮겨 경제수석비서관과 체신부 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5공화국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82년부터 7년간 대우통신·대우부품·대우자동차 사장 등 기업경영진을 거쳤고 금융통화운영위원 재직 당시 박재운 경제수석과 만나 친분을 맺었다. 성격이 시원스러워 따르는 사람이 많다. 부인 이영숙(57)씨 사이에 2남이 있다. 신현만 기자

## 김덕 안기부장

"교수 출신으로서 너무 힘겹고 어려운 자리를 맡은 셈이나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안기부를 가꿔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일 안기부장으로 전격 발탁된 김덕 한국외국어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첫 소감으로 "과거 어두웠던 정보문화를 밝은 정보문화로 바꿔 새로운 정보문화를 창출하는 산과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안기부장은 앞으로 안기부의 위상 변화에 대해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 정치사찰 기능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잘라 말하면서 "그 대신 해외정보와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맞는 대북정보 수집업무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안기부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안기부 기구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제도적 문제까지 지금 답변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또 "안기부장은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받들어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기구로 앞으로 대통령이 해외정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 "국민 신뢰받는 안기부 만들겠다"

안기부를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58살로 경북 선산이 고향인 김 안기부장은 지난 62년 외국어대 국제정치학 강사로 교편을 잡은 뒤 31년 동안 외국어대에 재직하며 법정대학장·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86년 남북직접회담 자문위원을 맡는 등 정부의 각종 남북교섭 자문에 응해온 동북아문제 전문가로 87년에는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민주당 시절부터 통일교 문 자문역할을 맡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평소 유체 형태와 유사한 남북연합과 일관성 있는 협상태도를 해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디애나대학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저서에 <외교론> <북한외교론> 등이 있다. 박찬수

## 자동차 정비사원 모집

자동차산업 발전의 선두주자인 현대자동차서비스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젊고 의욕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93신입생 남·여모집

한국IBM협력교육기관/2년제 전문과정

모집학과 및 인원

25-27  
평과 동일  
과제본 양

방3칸, 거실, 주  
실입주금:  
4,500  
•용자별5